朝鮮日報
第二夕刊 十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獨、重砲兵陣地構築
近近和蘭侵入計畫?
和蘭側對獨强硬聲明發表

【倫敦九日發同盟】九日의 데리·레테그라프紙 암스텔담特派員은 獨逸軍의 和蘭侵入이 切迫하엿다고 다음가치 報道하엿다 情報에依하면 獨逸最高司令部는 最近和蘭國境으로부터 東北六十四키로 되는 켐크링그·하우제에 移轉하엿다고 하며 로 獨逸의和蘭侵入은 昨年十一月當時와 同程度로 切迫된것으로보여 二、三週間안으로 實現될可能性이잇다 和蘭國에 突出한 獨領크레브地方에는 重砲兵陣地가 構築되어 着着大戰準備가 整備되엇는데 이重砲는 和蘭의 유트레히市를砲擊할수잇는 巨砲라고한다 一方最近 全和蘭國境에따라敵地點에는 새로飛行基地가 拜設되엇다고 한는데 以上과가튼情勢는 지난六日和蘭政府가發表한 對獨强硬聲明의 背景이되는것으로 보여 注目된다

軍事參議官初會議

【東京電話同盟】陸軍에서는 十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陸相官邸에서 軍事參議官初會議를 開催 閑院參謀總長宮殿下의 御缺席을 除한外에 朝香、東久邇兩大將宮殿下를 奉始하와、寺內、杉山、古莊、宇佐美各參議官及 山田敎育總監 參集 陸軍省側으로부터 畑陸相 阿南次官、武藤軍務局長、中村兵務局長、參謀本部側으로부터澤田次長、富永少將等이出席하여 먼저 富永少將으로부터 最近支那에서의 戰況을詳細說明한後 近近成立될것으로豫定되는 支那新中央政權問題 其他에對하여懇談 正午午餐을 함께한後 散會하엿다

厦門狙擊事件 犯人尙未逮捕

【厦門九日發同盟】昨八日 鼓浪嶼에서 發生한 黃顯功及 劉勵英氏狙擊事件에 對하여 帝國海軍及 總領事館警察局은 鼓浪嶼工部局을 鞭撻하는同時에 緊密한 連絡下에 嚴重한捜査를 進行中이엇스나 아직 一名의犯人도 逮捕하지못하엿다 犯人은三名이라고하는데 被害者의 地位에서보면 抗日테로團一派의 所行인것은 明白하나 狹少한鼓浪嶼에서 아직 이가튼不逞分子가 出沒한다는것은 鼓浪嶼工部局의 無力을말하는것일뿐아니라民衆의 安住를 威脅하는것이라하여 非難이 藉藉하다 一方皇軍의따뜻한保護下에 安居樂業을 謳歌하고잇는 厦門一帶民衆은 重慶政府의 不絕한 執念에 對하여 지금 매우怨聲이 노파가고잇다 被害者의 한사람인 黃顯功氏는 厦門特別市政府參議인同時에 華僑問題研究의 權威者이다 現在當地華僑協會會長의 要職에잇는데 南洋華僑의資金을 厦門에導入시켜 厦門經濟開發을 圖謀하려고 일찍부터 積極的活動을 繼續하고잇섯더드로 極히 溫厚한紳士로 厦門에서는勿論 南洋華僑間의信用은 相當히두터웟다한다

米、大海軍擴充案
下院方面反對氣勢
코늘下院海軍委員反駁

【華盛頓九日發同盟】스타크海軍作戰部長은 一日의 下院海軍委員會에서 뷘슨海軍擴張計畫의內容을 說明、米國의大海軍主義를主張하엿는데 이에對하여 벌써부터議會一部에 有力한反對論이擡頭하고잇다 그中에서도 共和黨의코늘下院海軍委員과 가튼이는 九日 스타크部長의 證言을反駁하여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아메리카의海軍政策은 오랫동안世界第一의 海軍을가지는데잇섯다 그런데 우리는이제 아메리카는 世界的海軍國이라는데對하여 너무神經過敏이엇고」

一方괌島防備問題를 漸次討議한데對하여도 反對論이擡頭하고잇다 反對派는 괌島防備案은 昨年의 議會에서 이미否決되엇슴으로 今年에다시 이런 提案이 提出된다고하여도 議會에서는 마찬가지로猛烈한反對를 바들것은 必至일것이다

米下院海軍委員會
大統領權限擴充案審議를中止

【華盛頓九日發同盟】米國下院海軍委員會는 九日前日에 繼續하여 大統領權限擴張案을 審議中이엇든바 九日一旦 그審議를 中止하기로決定하엿다 右大統領權限擴張案은 지난四日에 에디슨海軍長官이 提案한것으로各方面의 非難反對를 無視하는것이엇는데 消息通側의 觀測에 依하면 右審議中止에依하여 政府는 다음大統領選擧에서의 反對를避하기爲하여 大統領權限擴張案의 實現을 當分間斷念한것으로보고잇다

荒德에 皇軍部隊

伊太利를中心으로
빨칸諸國動向活潑
羅匈係爭友好的解決期待

【羅馬九日發同盟】지난六、七兩日의伊、匈外相會談을契機로 伊太利의빨칸에對한 積極的工作이豫想되는이때 羅馬外交消息通이傳하는바에 依하면 政府는 빨칸에잇서서의 外交陣을 一新하기爲하여 近近葡牙利、유고슬라비아 兩國駐箚公使의 更迭을하고 빨칸의平和에對한 危險을除去하기爲하여 빨칸에서의 各種係爭問題를 友好的으로 解決하기에 努力하게될것이라고한다 一方 伊太利官邊側은차기匈牙利外相이 軍事協定에 署名하기爲하여 近近羅馬를 訪問하리라는報道에 對하여서는 言明을 避하고잇스나 파시스트黨系新聞은 차노外相이 近近부다페스트市를訪問하고또는 가펜코羅馬尼亞外相이 羅馬市를來訪하여 트란실바니아地方에對한 匈牙利와의係爭問題解決에關하여 協議하리라고報道하여 伊太利를中心으로하는 빨칸의動向은 漸漸活潑化하려고하고잇다

濠、駐日公使任命

【倫敦九日發同盟】濠洲政府는 米國과의間에 外交關係를 맺고저 가지고 雙方新公使를 任命하엿는데 이와同時에 濠洲政府는 九日 日本과도 正式外交關係를 確立하려고 近近駐日公使派遣을 考慮中이라는旨를發表하엿다

志願兵 青少年의 訓練敎養
國防上絕對緊要
志願兵青少年訓練擴充에對하여 朝鮮軍當局談

事變以來朝鮮半島가 國防上大陸의兵站基地로서의 內容을充實시키고자 當局에서는 最大의關心으로서 推進指導에힘써와는데 朝鮮軍에서는 十日軍擔當記者團과會見하고 總督府가 時局關係豫算의通過 特히志願兵訓練及青年訓練의劃期的擴充을 圖謀하여 이것을遂行하는데關하여 軍當局은 談의形式으로서 그重要決意를披瀝하엿다

軍은 일찌기朝鮮半島가 國防上가진그重責에 鑑하여 빨리必要한 物心兩面의 施設을急히하여서 더욱 現下事變에 兵站基地인 內容을發揮함과 同時에 將來의新情勢에 即應할수잇는態勢를 가추기를 熱望하여왓는데 이번에 總督府時局關係豫算은 關係當局의 紹大한努力과 中央當局의 朝鮮에對한 理解認識으로 此方面의 要求를從來에 比하여 만히容認하여 特히國防上重要한各種豫算外에 志願兵訓練施設及青年訓練所擴充豫算이 通過하게된것은 邦家를爲하여 또는半島將來의進展을爲하여 참으로 慶祝하여마지안는바이다 이로말미아마 志願兵訓練所는 한꺼번에 現在의六倍로 또이와不離한 關係가잇는 青年訓練所는 今年度(昭和十五年度)에 七百八十五個所 明年度(昭和十六年度)는 九百三十七個所를 新設할 飛躍的擴充을할수잇게되엇다 그러나 이것을實行하는 容易한事業이아니다 大抵靑年이야 말로 國家興隆의基礎이고 또는 明日의 國家의 運命을 雙肩에 지고잇는 源泉이다 特히軍으로서는 狹義國防上으로서도 또는 廣義國防의 觀點으로서도 有爲한靑少年의 敎養은 最大의關心을 가진바이다 그런데 半島從來의 趨向은 一般으로 青年의敎養指導에對하여 한層더 眞摯熱烈한 內容의 充實에 邁進할必要가잇는것으로 觀察된다 內鮮靑年을 勿論하고 有爲한 青年의 敎養訓練及志願兵制度의 本質的發揚에 關하여서는 光輝잇는 新年에當하여 本制度의 創設的擴充을 契機로하여 官民이 모두 靑年敎育이 國家를 爲함은 勿論、一家를爲하여서도 또는 個人을 爲하여서도極히 重要한것임을充分히認識하여 熱烈한氣魄과眞摯한努力으로서 만흔成果를거두기를熱望하여마지안는바이다

日本側好意에感謝
新政權方針과中華日報論調

【上海九日發同盟】八日 [illegible] 中國新中央政權樹立[illegible]에 對하여 [illegible] 方策을 閣議決定한데 對하여 汪精衛派中國國民黨은 多大한好感을가지고 [illegible] 東京으로부터의 公報[illegible] 이에相應하여 [illegible] 中華[illegible] 新中央政權樹立運動의進展이라고題하여 日本의好意에 感謝하는同時에 다시 和平救國運動에邁進할 決意를披瀝하여 다음가치論述하엿다

日本政府가 中國의 新中央政權樹立運動에 對應할 對策을 閣議에서 討論한것은 中國各方面人士에 對하여서는 多大한關心事이엇는데 그것이 閣議에서 決定을보앗고 內閣書記官長의 發表하는 談話는 日本의意圖와 汪先生의指導하는 和平運動과는 一致되어 日本政府는 全力을다하여 中國新中央政權의 成立發展에 協力하기로 [illegible] 兩國의 和平運動은 [illegible] 一切의中傷離間을 排除하여오고 日本側은 [illegible] 聲明의原則을 維持하고 또는이를根據로하여 政策을 決定하여 行動과事實로써 和平의誠意를 表明하여왓는데 그는中國의和平運動에 提携하는者로서는 歡喜에 不堪하는 바이다 新中央政權樹立運動은 和平運動이 반드시經過치아니치못할 段階의하나이요 또는 講和의 主體인 同時에 建國의 主體이다 그成立에는 두가지 前提가 必要한데 第一은 日本이 中國의 中央政權을尊重할 必要가잇고 第二는 人心이中國人民의 中央政權을 信任할必要가잇다 現在我等은 人民의意思와 力量을 集合시키기만하면 新中央政權樹立運動은 完成할수잇다 나아가서는 和平의實現을 꾀할 [illegible] 今次日本의閣議 [illegible] 新中央政權 樹立運動 [illegible] 中傷離間은 모두無效하게되엇다 今後或은 [illegible] 暗殺파가튼 手段에 呼訴하여 이를妨害하려고 企圖할지도 모르나 그러나暗殺파가튼 手段은 中傷離間派와가치 政治問題를 解決하고 政治運動을 抹消할수는 업슴은 過去의 歷史가 明示하는바이다 新中央政權樹立工作은 進展하여 和平의 工作도 開始되엇는데 此等의進展과 開始는 我等의 奮鬪의 效果가잇다 또는奮鬪가업서서는 日本의 誠意도 無效에그칠것이다 今後의工作은 더욱困難하나 要는 和平運動을 完成하는데잇스므로 我等은 더욱큰決心을 가지고 奮鬪할것을 盟誓하고 또日本은 더욱만흔 誠意로서 協力하여주기를熱望하는바이다

樞相、內大臣과會見
政局問題를協議
今日樞府初會議散會後

【東京電話同盟】近衛樞密院議長은 十日樞密院初會議散會後 內大臣府에서 湯淺內府와 會見하고 九日 內府와 阿部首相會見內容을 聽取 政局問題에 關하여 여러가지로 意見交換을行하고 樞相은 午時卅四二十分退出 華族會館에 入하엿다 (寫眞은 近衛樞相과 湯淺內府)

柳川長官、南京에

【東京電話同盟】柳川興亞院總務長官은 十一日부터 南京에서열리는 [illegible] 會議에 出席하기爲하여 十日午前六時五十分 [illegible] 向하엿다 그리고同長官은 來二十日頃 [illegible] 歸京豫定이다 [illegible]

八面鋒

◇ 議會의 總選擧를 바든 首相、畑陸相의 對政黨强硬進言으로 갈팡질팡.
◇ 內閣이 갈린다든말든 支那事變處理에는 두갈이잇슬리업스니 그대로두고보는것이 若何.
◇ 阿部首相更迭問題로 英國內閣危機、佛도內閣改造說、世界的으로 政變時期?
◇ 남은 何如間에 제精神차리면그만、오직 大局觀察이잇슬뿐.
◇ 重慶에 戰勝祝宴、但祭飯의 〃떼마〃이지만 事變第四年新春劈頭의 넌센스.
◇ 그理由에日『現有兵力의 半數가 太平洋에서 日本海軍攻擊에 遭遇하면 後退할수밧게업다』는것.
◇ 米스作戰部長은 十三億弗의 軍艦建造要求.
◇ 새作戰의眞意를可知、武力外는 살어갈길이업는 國際情勢.
◇ 本邦昨年中 對外貿易은 出超八億突破、對第三國貿易收支는 어떠한고.

五萬噸級以上
主力艦建造計畫
스米海軍作戰部長言明

【華盛頓九日發同盟】米國上院海軍委員會는 九日前日에 繼續하여 스타크海軍作戰部長의 證言을 聽取하엿는데 스타크部長은 現在로 計畫中인것을 비로소 明言하여 다음가치 말하엿다 五萬噸以上의 主力艦建造를 現在까지 研究한 結果로말하면 米國海軍은 五萬噸或은 五萬二千噸의 主力艦을 建造하기로 될것이다

英空軍派遣部隊 總司令官바랏將任命

【倫敦九日發同盟】英國空軍省은 九日 大陸派遣空軍部隊總司令官으로 E·F 바랏트空軍中將이任命되엇는데 바랏트總司令官의任務로서 發表된것은 다음과갓다

一、英軍大陸派遣部隊及 佛國西部戰線部隊에 對한 英國空軍의有効한 援助를 確保하기爲하여 陸軍總司令官 고트少將과의 連絡
一、佛國空軍總司令官과의連絡
一、英國大陸派遣空軍部隊와佛國空軍部隊와의協同作戰遂行

興亞院會議에 森岡次長出席

【北京十日發同盟】森岡華北連絡部長官 [illegible]

괌島防備問題로
米下院海軍委員會紛糾

【華盛頓九日發同盟】스타크海軍作戰部長은 八日의 米國下院海軍委員會에서 突然海軍의 괌島防備問題를 發表하엿는데 이어 九日의海軍委員會에서도同計畫의內容에對하여『海軍은 괌島防備에 關하여 이미 四百萬弗의 豫算을議會에提出하엿다 이豫算은 第十四海軍區內旺水域의 豫算에 包含되어잇는데 海軍當局은 이에依하여 괌島에 浚渫工事를 하고또는 防波堤를 構築하려는 바이다』라고 發表하엿는데 海軍委員大部分은 一齊히이에 反對表明하여 이가튼 計畫은괌島武裝에 關한모든 計畫을否決한 昨年下院海軍委員會의決議를 無視한것이라하여 議場은一時騷然하엿다 이에關하여 뷘슨海軍委員長은 新聞記者團에 對하여『괌島防備强化에關한經費를 海軍豫算에 編入시키려는 海軍當局의計畫은 結局否決될것이다 第十四海軍區豫算討議에 際하여 計畫은 右經費에包含되어 잇는것이나 否決될것은 旣定事實이다』라고말하엿다

鼓浪嶼當局 日本側에協力

【厦門九日發同盟】八日夜鼓浪嶼에서 發生한不祥事件에 關하여 內田海門總領事는 九日午前工部局參議會長인피크크氏에게『本事件은 明白히抗日테로의 所行이므로 昨年十月協定에依하여 嚴重且迅速한手配를 希望한다』라는 通告를한데對하여 同參議會長으로부터 即時本事件의 發生에對하여 遺憾의뜻을 表하는同時에 工部局은 犯人逮捕에 萬全의策을取하기를 保障한다는回答을하엿다 그리고 警視總監은 工部局에 對하여 本事件의 解決及 犯人逮捕에는 모든 努力을하여 日本側과 緊密한 聯繫를 取하기를 要令하는同時에總監의權限으로 犯人의逮捕及確實한情報에對하여 二百五十元의賞金을 提供한다는 警察特別報酬를 提出하엿다

英國의食糧統制
八日부터一部實施
皇室서도率先自制

【倫敦九日發同盟】英國戰時食糧統制第一步인 빠터、베콘砂糖의配定販賣는 八日부터 實施되어全國에한사람의 例外도 업시 皇帝皇后를 奉始하여各王族도 다 가튼制限을 바드시기로되엇는데 皇帝께서는 特히自進하사『우리만特別取扱을 하지말라』하엿다고하며 엘리자베스皇后께서도 亦是 손수王室式場〃메뉴〃를 만드시사 이를嚴守하도록 全王族에配布하섯는데 이메뉴에依하면 從來의午餐과 晚餐은 찬을모두두개씩減하기로되엇잇다 그리고 엘리자베스皇后께서는 肉類代身에 菜蔬와果物을增加하도록 命令하섯다고하다

차노伊外相歸還

【부다페스트九日發同盟】차노伊外相과의 重要會談을行한 차키匈外相은 九日午前 부다페스트市에 歸還하엿다 伊太利、匈牙利外相의 베네치아會談에서는 伊政府의 否定에도 不拘하고 一般으로 伊匈軍事同盟이 締結된것이라고 보고잇는데 이軍事同盟의內容은 特히蘇聯의 빨칸侵略의 可能性을 考慮하여 伊太利가 匈牙利에 無條件하고 絕對的援助를 주기로한것이라고 傳한다 그리고 차키外相은 記者團과의 會見에서 最近流布되고잇는 테레키首相或은 차키外相의 再次訪羅說을 否定하고잇다

신경쇠약·불민증에 テーリン 테레린 가루약 發賣元 京城 株式會社 新井藥房

피곤을잇고 能率이나게하는 テーリン 테레린 가루약 本舖 東京 中村信治商店

化學治淋內服特効劑 コノパリン 고노빠린 治淋期短縮에大成功으로 醫藥界에驚異的革命이다 ¥3.00 7.00 11.00 京城 朝日製藥株式會社 支店 全州·奉天·北京

百日咳·感冒咳·喘息 チムツール 치무쓰루 醫藥 단!

高速度補血强精劑 蔘茸精 健康의源泉·人類의生命水 ¥3.00 5.00

不老長壽 强精回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円

탁한피를맑게하며 여러가지병독을없애고신체를튼튼이하기로유명한약은해초정(海草精)이제일이다 一個月分四圓九十錢 京城鍾路六丁目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

住友の電線とケーブル
鑛山用 工場用 キヤブタイヤ·ケーブル
電線はどんな特殊品でも御注文に應じます
鮮內唯一の電線專門店
株式會社 住友電線製造所 特定販賣所
株式會社 關西電線製造所 東海電線株式會社 特約販賣店
株式會社 ミナト特殊電線製造一手販賣
京城府古市町四拾番地 影久商店京城出張所 電話本局四〇四〇番
本店大阪 出張所小倉 京都 廣島

本社廣島支局 電本②三八八六番

疲勞가풀리고 元氣가나는! 이一浴! 身体의속으로부터따뜻해서치위를모르는! 六〇ハップ
六〇ハップ一의一浴으로 치운겨울도속으로부터 따뜻해서 치위를모르고지낼수잇스므로 어느家庭에서나大評判! 더욱이 살거칠 트는것 凍傷과濕疹 가렵고아푼 여러가지皮膚病에는 조금도刺戟업시 순하게깨끗이되므로 非常히貴히역여서 特히愛用되고잇습니다 神經痛과류마치스 冷症 婦人病과 痔疾에는 妙합니다! 어느분이나 꼭試驗해주시요

家庭溫泉 特許 各藥店에有함 六〇ハップ本舖

流行歌 南江의追憶 舞笛人作 李在鎬 作曲 高雲峰 8662 태평레코-드

アイスケーキ機 金山府大方町通り 朝鮮冷凍工業所 電話五六一番 (型錄進呈)

五倍增募할志願兵 修了期限도大短縮

今年만은二千名, 明年부터三千名收容할수잇도록

訓練所를急速히增築할方針

국가간성(國家干城)의 동량은 총남부 육군지원병 훈련소는오는사월부터 대확충을 하기로되어소요경비 일백사십오만원도대장성의 사정을 통과하엿스므로상능부에서는 시일부 판보도명변도모집 요항을 발표하엿다 이번모집인원은 십오변도전후기각일천명과 십륙년도 제일기천명한게 삼천명으로 현재의일변도모집인원 전후기합 육백명에비하면 실로오배의 대증모이다 입소기(入所期)는 십오년도전기는사월상순 동후기는 십이월상순 십륙년도 제일기는 명년사월상순이며 훈련기간도 현재의육개월을 단축하야 십오년도전기 만은개월, 후기부터는사개월로하여 일년에세번식수료생을내도록되엇다

지망자는 각기부하여 오는 이월십일까지 본적지소할경찰서장에게 원서를제출하기로되엇는데 지원자격은 금년십이월일일에 만십칠세이상, 키가일메ー타오십오이상으로 소학교사학년수료정도의 학력을가진자로 도지사가추천한중에서다시 시험선발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번응모자는 모두연제의양주군 노해면공덕리(楊州郡蘆海面孔德里)의훈련소를 급속히 증축하여 수용하기로되기때문에 금변도만은 전후기를합하여 이천명이나 교사가다될 때따라 십륙년도부터는 일, 이, 삼기도 단호아 완전히 삼천명식을 모집하기로되는것이다

별달린軍服을입고

오늘부터帝國軍人으로感激을맛보는 志願兵三回修了生入營初日

조선육군병지원자훈련소 제삼회수료생 이백오십명은 십일아침아홉시 칠시, 칠구록의 전송으로 일제히 전조선각연대에입영하엿다 이날아침 날씨는 몹씨추워서 칼을 찌르는듯하엿스나 영문(營門)에들어가는 그들의기상은 모두씩씩하고 늠름하여서 오늘부터 우리도 당당한 제국군인의 한사람이된다는 기쁨기색이 얼굴에 넘치고잇섯다 영문에들어간 그들은 곳엄숙하게 분류 군복을바더서 바꾸어입고 군인된 첫날의기쁨에 규률잇는 청호련을 밧기시작하엿다 입영한 수효는 칠십삼 칠십사 칠십오 칠십륙 칠십칠 칠십팔 칠십구 팔십등 각부대련대에 수용되섯명씨파 치중(輜重)륙십구련대에오십명으로 모두이백오십명이다 그리고 소화십사년도 후기수료생 삼백명가운데서 마흔아홉명은 써 작년십이월에 치중병(輜重兵)으로 입영하엿고 한명은 고향에 도다가서 병으로죽엇다

京城警防團 十五日에始式

경기도에서 경성부내 각경방단의진용을보아 사기를 진작시키기위해서 오는십오일 오전열한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남종독 중추군사령관이 임장하고 판민다수가 참렬한가운데 경방단경성이래 제일회 경방시식(防式)을 거행하기로되엇다 이에압서 부내 각경방단간부들은 십일 오후두시 경성운동장에모히어 경방시식의 예비연습을하엿다

X光線完備 大京齒科醫院 京城鍾路三丁目 電話光(3)三〇二〇番

全朝鮮青年團大會

勤勞奉仕隊도編成

二千六百年記念에動員될五千健兒

총독부 남군국에서는 황기이천육백년을 조선청년들에게 힘잇는이상을 주게하기 위하여이번가을 구월이나 시월중에 전조선청년단 대회를 경성에서 열기로되엇다 이대회에는 전조선으로부터 청년단원 약오천명이참가하여 이틀동안에 걸처 이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이대회가끗나는대로 구간으로 대표약이백오십명으로써 근로봉사대를 편성하여 오일동안 부여신궁어조영의 봉사작업에 봉사키로되엇다

蒙古地方旅行에 注意事項通牒

몽강(蒙疆)부대에서는 몽고(蒙古)지방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주의하지안흐면안될사항이여러가지잇다고 갈일 다음파가튼내용의 통첩이 총독부에 드러왔다

근래몽고들판에는 원인모를화재(野火)가 빈번히 발생하여 몽고인의 생활에 일너비상한충동을 주고잇는데 원래 몽고인이 벌판을생명과가치 애호하며 목축하여익는점으로보아 이점을 상하여 몽고리 벌판(牧草)을 애호할것은 몽고지대에 너지전체가 가질의무이다 여행자는들의원인이될만한 일체의 행위 특히 담배꽁지를 함부루 버려서 불이붓는것파가튼일은 절대로업도록 각별히주의해야만한다 그리고 이밧게오지(奧地)여행가는 여행출발전에 미리 다음과가튼 사항을 준비하여가지고 출발하여 현지군대의하기를 바란다는것이다

一、糧秣, 燃料, 까솔린等은行程所要量及若干의豫備品을携行할것

二、就中燃料는 現地에서 求하기困難하므로 木炭等소시개等携行할것

三、寢具는各人마다 반드시携行할것

四、目的行動의大要와宿舍, 案內人等의安否를 미리連絡取할것

五、될수잇스면 天幕等을携行할것

六、不得已現在에서 까소링等을 借用할 境遇에는 反對로 現地渡를 原則으로하여 實施困難한 境遇에는 (?)를 包含하여 返濟할것

氏制度設定에 內地學界서도關心

京大法理研究會, 說明을請하여 宮本法務局長出張廿五日講演

전번에 공포된 "씨"(氏)제도에 관하여 조선민사령 개정은 내지법학게에도 큰파문을 이르키고잇는데 동경제국대학(東京帝大)법학부 명예교수, 교수, 조교수들로써 조직된 법리연구회(法理研究會)에서는 이에대하여 각별히 흥미를가지고 연구하고 있스며 경도제국대학의 법학부에서는 이번에 궁본법무국장(宮本法務局長)에게 개정된 조선민사령에대하여 조선에서 발표하게된 입장에서 강연을해달라는 청이왓다 법학회 대법이 권위잇는 최고봉의학회로써 이번요청에는 사실 이것은 이번이처음되는 사실이다 궁본법무국장은 여러가지요무를 가지고 불원간 동경에갈터이므로 그기회를 이용하여 오는이십오일 법리연구회에서 조선민사령개정에대한 강연을 하기로 결정하엿다

이에대하여 총독부법무국 암도민사과장(岩島民事課長)은 다음과가치 말한다

조선의 "씨"(氏)제도설정에대하여는 내지각방면에서 적지안흔 관심을 가지고잇는모양인데 이는 획기적사실인만치 기대를 가지고잇는까닭이다 이번에 동경제국대학 수저법학부장이 궁본법무국장에게 정된 조선민사령 즉 "씨"(氏)제도설정에 대하여 강연을 해달라고 청촉이온것은 장차 호적법 친족법 상속법(親族法 相續法)이 전문학자간에도 달할터이므로 법령의 일소면, 더욱 "씨"제도에대하여 장래 인법의참고에 이바지하려는것이다

九孔炭에窒息 三母子絶命

昨夜開城府內의慘事

【開城支局電話】 지난구일밤개성부내고려정(高麗町)육백사십번지 김건종(金健鍾)의안해 최덕순(崔德順)(三)은 영아성철도나되는 심한지우를 견딜수업서 구공탄세개를 사다가 화로에피워노코 그외 두아들 홍대(弘大)(三)와 홍외(弘外)(三)파함께 세식구가 기파 잠들어자다가 여란까스에 중독되어질식된것을 밤새도록 야경(夜警)을돌다가 오늘새벽하시에 집에도라온 남편이 발견하엿스나 때는 이미느저 세식구가 절명하엿다한다

二萬圓詐欺賭博

新聞紙뭉치를미끼로앗돈을빼아서

그임납 중부서에서는 처남군(天安郡)에 사는 김인성(金仁成)(三)을 붓잡아다가 사기도박엽의로 취조를 하는중입니다 그내용은 다음과갓다

즉 수일전 인천부 이봉경(仁川府龍岡町)이백구번지에사는 곽흥중개상 장학서(張學瑞)(三)는볼일이잇서 서울에와서다가 그전부터 안면이잇든 김(金)의 맛나든데김은 장에게 고양군숭인면 (高陽郡崇仁面)사는 부호 고모(高某)의돈을 떠먹자고하며 장을느내청운정(淸雲町)백운장(白雲莊)뒷산에유인하야 이미약속을하여두엇든 동류 세명과가치 화투를시작하엿다 그러데 조금잇다가 김이 돈꾸러미 자기에게 매끼라고하여 장의 소지금 일만구천칠백원파 다른 동류들에게서는 미리 준비케하엿든 신문지뭉치를 밧고 얼마안되여 순사가온다고하며 그냥도망을하엿다가 피해자의 계출로어제밤 김인성이 먼저체포된것이다 그리고중로서에서는 계속하여보호로가장하엿든 고모와기타연루자의 행방을찻는중이다

僵屍또두個

극작스런 추위에 얼어죽은가난한 두목숨

◇개성노국정(開城府局町)에사는 김윤석(金允錫)(三)은 팔일서울로 품파리를하러 올라와여기저기 도라다녓스나 일자리는업고 추위와 주림은심하여 구일밤 부내현저정오십일번지 한데아궁지아페서 하로밤을 드새인다는것이 어러죽고말엇고

◇십일아침 영천정의밥골목러에 마흔살가량된 거지의어러죽은시체가잇서 지나던사람이 서대문서에 계출하여왓는데 시체엿다

洋服窃盜常習

구일밤본정서에서는 부내체부정(體府町)일백팔십이번지 주동식(朱東植)(三)능네명의 절도상습자를 붓잡아다가 취조중인데 이들은작년시월부터 시내각처에 양복점이나 『하끼모드』 양복점에서 외투를홈친것을 비롯하여 그간본정서판내각양복점에서 약이천원어치의물건을홈처서 처분한사실을자백하다

元山에火災

朝鮮石油工場서 危機一髮에鎭火

【元山】 팔일오후다섯시십오분쯤원산부본항동 조선석유회사원산공장 큰부억연료매에서 불이붓는데 때마침 공장안경방단과원산경방단의출동으로 요행큰일에일의지안코 동여섯시이십분쯤이불을끄더 원인이아 손해는 지금조사중이다

國語敎員講習會

조선교육회에서는 경기도와공동주최로 오는 이십이일부터십오일까지 매일오후련시밤부터네시반까지 경성중학교강당에서소학교상급반국어선생에 대하여국어강습회를 개최하는데 강사는구주제국대학교수고목시지조(高木市之助)씨이다

今朝零下十八度五

來日부터는풀린다

이삼일전부터 갑작이 기온이내려서 이제조선에서는금년드러최저기록인영하십칠도를보이드니오늘아츰에는어제보다일도나더내려 십팔도오분이라는 강추위로 거리에 오고가는행인들의 수도관신 출업지단거 롤거리까지도숨차게될립것는데우세한 고기압은 황하(黃河)방면으로가고 동고에 잇는고기압은그세력이대단히 미약하기대문에내일부터는 날씨가 훨신누그러질터이라한다

釜山에火災

【釜山電話同盟】 십일오전여덜시오십분 부산부초량정 협동인쇄회사(協同印刷會社)로부터 불이나서 비상소방을 이루엇는데다행이 이우집에는 연소되지아혓스나건물등을 각각반소하구동아홉시 이십오분에 진화하엿다 손해는 약일만이천원으로 원인방금조사중이다

永登浦郵便所 局으로昇格

체신국에서는 오는사월 신년도부터 부내영등포(永登浦)우편소를 우편국으로 청진(淸津)공사분장국(工事分掌局)을 분장국으로 승격시키기로 결정 예산도 승인되엇다

어미는改嫁, 오빠는自殺한 가엽슨동무에게이情을!

滿洲金彗珠孃, 벙어리를털어本社에寄託

자식보다 남편을중히여겨 사남매를버리고 후남편을따라간야속한 어미에게 죽엄으로써 항거한점이포장진순(張鎭淳)(三)소년의 눈물겨운애화가 보지지난사일부석간에 보도되어 일반에게충동을 주엇거니와 십일부사에는 멀리 만주길림성시대마로(滿洲吉林省市大馬路)김순화(金淳化)씨의딸 김혜주(金慧珠)(三)양은 이기사를읽고 어린가슴에도 가여운생각을 참지못하여 눈물까지흘리고 한푼두푼식 저축하여 두엇던 벙어리를 깨트리어 돈오원을 어머니와 형제를 잃고울고잇는 동무 진호와진판에게 전하여 따뜻한 밥이라도 하술지어먹게해주라고 으면으로 본사에보내왓다

남의쌀가지고 八百餘圓詐欺

충남논산(論山)군은성 구성실번지 유성근(兪成根)(三)과 이봉삼(李峯三)(三)두사람은 서로짜고 근처에잇는 김명호(金明鎬)의 정미소에 쌀마혼가마를 주문하도하여놋고 배달하는 즉시로 돈을 치루겟다고 하고는 쌀이오자마자 뒷집에사는 박모에게 팔백팔십원을받고 팔어넘기고 부내현저정 친구의집에 묵고잇다가 십일서대문서에 붓들리엇다

簡保療養院實現

産金送電線擴充費도豫算대로承認되고 電話開通이 만히 될것도快報

膨脹한遞信豫算

십오년도의 체신국 예산에 판해서 십일 체신국장은 산천(山田)이 "이천오백여만원을더 어덧다"고 전제하면서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체신국신년도예산으로 이번에 대장성을통과한것은 총액팔천칠백만원으로 작사년도보다비교하면 이천오백이십오만원의증가이다 그중에는 일천팔백사십만원의 보험관게의것이 포함되어잇다

▲…그중에서 가장큰것은 역시 산금국책의 중요성에비추어 산금전력(電力)관게의 비용이다 내여온 산금송전선부설삼개년계획의 최종연도분으로 일천육백구십이만구천원이 나왓고 전공(電工)기타 기술원양성에판한 경비로서 육만칠천원 이만이천볼트의 민간산금전력의 송전선 조성비가 일백륙십삼만이천원이 들어잇다

▲…신규사업으로는 전화삼천삼백개를 어더오게된것이 위선 기쁘다 그비용으로 삼백칠십만원을 어덧는데 십사년도에는일천구백개박게는엇지못햇던것이 약진조선의 현상에 비추어서 일약삼천삼백개로된것이다

▲또 간이보험가입자의 보건확충강화는 물론이고 폐병환자를 위하여서 연래의 희망이엇든『사나토리움』(요양원)의 실현을 보게된것은 반가운일이다 일백칠십칠만원을 가지고 삼개년계획으로 오만평기지 속에이백명수용의 요양원을 짓기로될터인데 초년도예산은 오십만원이다

▲항공관게도 상당이 커서다 사도(多獅島)항공시설과 전선각비행장의 확충 강화, 더욱이다 변간의 현안인 경성(京城)청도(靑島)선이 열리게되엇다

▲그외에 경성부내의 일본서는 영등포(永登浦)우편소가 국(局)으로 승격되게되엇고 현재의 광화문(光化門)하나 만으로는 전화가 너무번잡함으로 새로 동부에 분국(分局)하나를설치케될터이다

京畿道食糧配給組合 今日創立總會

米、雜穀을購入配給

지난번말 미곡배급조정령이공포되자 경기도에서는 곳식량배급조정의원활을 기하고 동법령의 완전한 운용을 기하고잇섯는데 이에따르는 민간단체로벌써부터 계획중이든 경기도식량배급조합(京畿道食糧配給組合)은 드디어 십일오후두시 경기도청에서 갑자(甘蔗)지사 동재하에 창립총회를 열엇다 도내의 쌀파잡곡의 배급조정을목적으로 이번에 새로생긴경기도 식량배급조합은 도에서지정한 도내의 유력한 정미업자와 잡곡업자 삼십삼명으로 결성되엇는데 이날총회에는 역원선거및 규약제정이 잇섯고아프로 이조합원이 연대책임으로자금을 융통하여 도내흥은 도외로부터 쌀을사서모혼다음 적당히 부군에 배급을하여 도내미곡수요의 절대수량확보를도모하게된다

또한 경성부내미곡배급조정역할을 마타보는 경성곡물하수조합은 이조합과 긴밀한연락을취하여 부내미곡수급에 진력을하게되는데 이로서 경기도내의미곡배급조정의 기구가완비되엇다

"暴利""十九錢也"

東署에서諭示

실수전이라는 보잘것업는 부당이득을보고 폭리취체에 걸린사나이―동대문파 제기정(祭基町)구십이번지일호 일용잡화상이성태(李聖泰)(三)는 구렴십이월이십이일부터 이십삼일까지에한통에 이십구전짜리 가정용석냥열아홉통을 한통에 삼십전씩에팔아 합계십구전이라는 부당이득을 보앗슴을뿐더러 석냥한통에반드시 십전짜리 빨래비누두개씩을 겸처서판것이 동대문경제게에 적발되어 구일오시처분을바덧다한다

鮮滿氷上對抗戰

來十四日、淸涼里링크

滿洲男女代表軍十三日入京

氷上競技界의 重大行事인 朝鮮、滿洲氷上對抗競技會는 來十四日 午前十時부터 淸涼里링크에서 열릴터인데 滿洲代表는 十三日午前八時四十分京城驛着列車로 入京할터인데 從來에는 十數年동안을 朝鮮代表軍이 優勝하여 왓스나 今年은 어떨지 期待를 만히 하게되어 鮮滿氷上界의 興味와 더욱이 京城이 서열리게되어 滿洲代表는 男子部보다도 女子部가 朝鮮軍을 凌駕하고잇스며 男子部는 朝鮮側이 有利하다고 본다 이날의 入場料는 一般五十錢 學生三十錢이라하야다

◇朝鮮代表― ▲男子部…兪顯昌(安州)徐明鎭(京城) 朴雲鶴(京城)洪鍾貞(府盟)兪漢鎭(京城)林寶榮(京城)崔日弘(京城) 李熙正(京城) ▲女子部…鶴谷(龍谷) 李仁九(龍谷) 田代(龍谷)飯塚(同盟)瀬川(第一高女)鄭福順(同盟)

◇滿洲代表― ▲男子部…安達(新京)橋本(撫順)松本(撫順)內藤(撫順)山本(奉天)川口(奉天)三代(撫順)水谷淸(安東) ▲女子部…大倉(新京) 關手(撫順)三尼(撫順)山本(奉天)江崎(奉天) 小野寺(奉天) ▲마키―新谷(旅大) 大西(撫順) 오시크모(哈爾) 村越(撫順) 高田(新京) 大館(旅大) 山賀(旅大) 안드레아우이키兄(哈爾) 撲吐(哈爾) ▲피―귀어―山城(大連) 中村(新京) 永井(哈爾) (寫眞은 上으로부터 兪顯昌、金熙正、姜漢鎭、崔日弘諸君)

力道界의至寶南君에 朝日體育賞을授與

【東京支社電話】 力道朝鮮의 快擧―東京朝日新聞社에서는 今年의 朝日體育賞授賞者를 今十日에 發表하엿는데 年前力道界(重量擧)의至寶 南昇龍君이 育成功勞者로 受賞者로는 今回에서 南君單一名이 推薦되어, 京都스포―츠界에 크라란 센세이슌을 어르키고잇다 南君은 昭和十四年度 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重量擧 競技에서 世界新記錄을 樹立한 偉勳을 기리기리賞讚하는意味에서 이번朝日體育賞을 맛기로된것이다 朝日賞은 일찌기 朝鮮出身으로 마라손覇者 孫基禎君이 바든바잇섯고 이번南君으로서 두번째이다 (寫眞은 南昇龍君)

京商軍하키優勝

朝鮮神宮奉贊體育大會氷上하키大會第三日인 十日은 中等決勝戰으로 松都中學對京城商業戰이 午前十一時二十分부터 東崇町城大링크에서 梅津、廣兒兩氏審判下에 開戰되엇는데 京商이 接戰끄테延長戰에 들어가 結局一對零으로 松都中學이 惜敗하엿다

京商		松都
田山 野邊 上永 智局		
中山 長波 村松 鍋水	WF	金漢瓊 金鍾和 李相彪
	DF	明重燮 鄭泰燮 金麟徹
柳	GK	姜晙煥
1	反則	5

京商 1 (1-0、0-0、0-0、延長1-0) 0 松都

進明籠球今夜歸京

東京서열린 全日本綜合女子籠球大會에 出場하엿던 進明高女籠球部一行은 今十日午後十時四十分 京城驛着列車로 歸京할터이라한다

旱害救濟義捐

【本社取扱分】 ▲一金 五十圓也 大阪市此花區上福島南二丁目 丸大印刷所 ▲一金 拾五圓也 滿洲府北加町九三 盧仁燮 ▲一金 七圓四拾四錢也 定州郡高山面渭山洞四二三 李德成 ▲一金 六圓拾四錢也 興南海星學校生徒一同(興南支局取扱) ▲一金 參圓也 晋州支局 ▲二金 七圓四拾錢也 松川敎會敎徒一同(松川支局取扱) ▲一金 貳拾圓也 殷山支局取扱分 ▲一金 六圓參錢也 市內仁寺町 基督敎五旬節會 ▲一金 拾五圓也 咸基鉉(中江鎭) ▲一金 壹百圓也 平南大同郡林原面南四里 高坊山長老敎會(大同支局取扱) ▲一金 一百拾六圓七拾九錢也 元山支局取扱分

金剛山火災義捐金

▲一金 壹百圓也 市內蓬萊町四ノ二二 李石璟

今夜의放送

第二放送 ▲午後六時 童話劇 ▲六時三〇分(咸)講演 ▲七時三〇分 講演 ▲八時 漫談 ▲八時三〇分 라디오바라에티 ▲九時 香律 ▲一〇時一〇分 初步國語講座

第一放送 ▲午後六時(大)唱歌 ▲六時二五分(城)講演 ▲八時(福岡)俚謠 ▲八時二〇分(東)漫才 ▲八時三〇分(東)時局讀本 ▲八時四〇分(大) 浪花節 ▲九時二〇分(東)落語

餘滴

어떠면 호장네 마당갓다는 말이잇다 ▲선비란 가난한것이 당연타는듯이 빈한한것을실타안고 선비의갈길을 즐긴다는 말이나 모두마찬가지의 말이다 ▲사실 학교선생이란 직책은판리나 회사원이나 장사아치 가터서는 안될것이다 적어도 학교선생이란 직무를 천직으로알고 이에전렴하는바 업서서는안될것이다 ▲이는사회가 그자신들에게 바랄것만이아니라 그들로하여금 그천직에 마음노코열심할수 잇슬만큼 조건을 가추어주어야 할것이다 ▲그러치안코 내아들 딸의 전생애에 판계되는교육의책임만을 떠맷길수업는것이다, 국가의백년대계를위하여 더욱그러타▲그러나 오늘의사정으로보면 중학교선생으로서 식솔은단코 가세는빈한하여 남의집자녀는 가르켜도 제자식은 중학교에 보낼수업다는 딱한사정에잇는이가 적지안타는말까지 듯는다▲제자식도 못가르키면서 남의자식만 가르킬수잇다는『천직의 명예』를 어데가서 차즐수 잇슬까 ▲보성중학교에서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주게되엿다던가 소학교 교원에게 물까수당을여간주게된다고해서그 호장네마당이 얼마나넓어질런지 모르나▲하여턴 반가운일이므로 호장네대신기뻐한다

명안수 明眼水
안병령약 眼病靈藥
眼疾에는 明眼水가神効
十錢 二十錢
商標 登錄
カゼビリン本舖
樂天堂製藥株式會社

朝報案內 十二指腸丸(십이지장충약) 十五日分金三圓 京城本町三丁目 坂井蘇仙堂藥局

採用 小店員 年齡十六、七歲 京城本町 電話本局②七四二一番

금자옷고름 ヤメカ 果然全鮮的大評判! 新發明品! 京城府中林町六二 カメヤ금사집

國境大藥房 振替京城一二三九番 安東市

早漏防止 淸導補腎丸 六十日分 一回 十圓

強性強精藥 精力衰退외早漏에 百發百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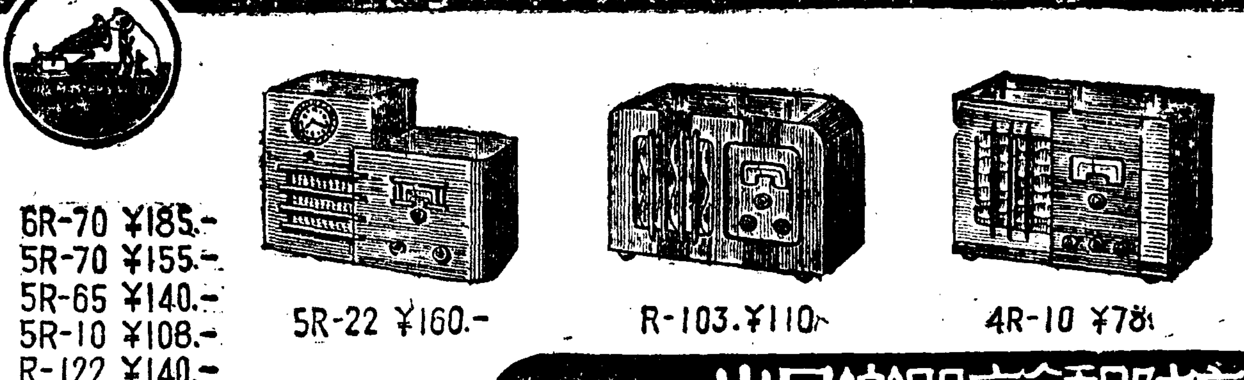
文房具 事務用品 手帖 三越型 錄 卸商 東光堂文具卸部 京城府齋洞四街 電光③370番

七千圓 漢藥全集

脊髓病自療法 明石市西新町 木本製藥所

ルーナピス 注射液 朝光·女性·少年發賣! 大陸藥品公司 京城府松町七四 ライオン製藥社

流行歌 추억은金子 C-2018 吹込 宋金鈴 一枚金一圓二〇錢 普及盤리갈레코드

絶對確信を以ってビクターラヂオをお勸め致します

5R-70 ¥185.- 5R-70 ¥155.- 5R-65 ¥140.- 5R-10 ¥108.- R-122 ¥140.- R-106 ¥130.- R-101 ¥80.- 5R-22 ¥160.- R-103 ¥110.- 4R-10 ¥78.-
京城鍾路 山口樂器店鍾路支店 電話光③八四四

第四回 基礎 支那語講習會(三月速成) 一月十五日開始 同民會

歐米各國特効 京城鍾路三丁目七番地 韓貫道內科醫院 米國生物醫學士 韓貫道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入院室完備

文壇新年의 호픽展望

作家가본創作界(上)

心境小說美學論

朴泰遠·安懷南 對談會

★性格論은 小說의常識

安懷南 朴兄 이번『文章』에 長篇『愛經』을 連載하는 모양인데『골목안』이나『驟雨』가튼 在來作品과는다른 抱負나 意圖가잇서요?

朴泰遠 元來는『川邊風景』을쓸려고했지만 아직은 時日도오래지안코 좀더『川邊風景』의 사람들이 나히도 먹고 時代도 더달러진後에쓰기로하고 이번『愛經』을쓰는데 이번 이小說도써바야알겟지만 世態小說에 틀림시 안틀린지는모르나 何如間 내가 딴곳본事實의整理가아니고 내맘에드는 弱하고 弱한人物들을 各人各樣으로 愛慾問題를 중심해서 取扱하려고합니다. 그러니까 事件보담 人物을맹그러 거기다가 硏究한 慾求를 表現하랴고합니다

安 그럼 요새問題되는 性格小說이될까요?

朴 性格 性格하지만 性格이란것은 小說이생긴以後의 常識이아니겟서요?

安 그러치만 그小說常識인 性格이 朴兄의『川邊風景』가튼데는잘 表現되지안흔게아닐까요

朴 그런데이번『愛經』은『川邊風景』과가튼 그러한 마음의 準備보담도 다른 形式과內容을 取扱하려고햇서요! 그런데이번제가 嚴正하게 못고치든것은『愛人』은 最近의 長篇인데 써오는中에 放棄에對하여 어떤罪惡가튼것을 느끼지안허요?

★心境小說 健在의辯

安 金南天氏가 發年號月評에서 心境小說이만쓰는사람은 그글레에빠져서 노하면 缺陷이나타난다고하면서『愛人』에 對한缺陷을 말햇는데 十九世紀的인性格小說도 잇는하면에 心境小說도 잇다는것을 認定해주는것이 올켓어요 다시말하면 林和氏나 金南天氏가튼이는『川邊風景』하면이作品의長點은 認定하지안코 그缺點만 指摘하는態度라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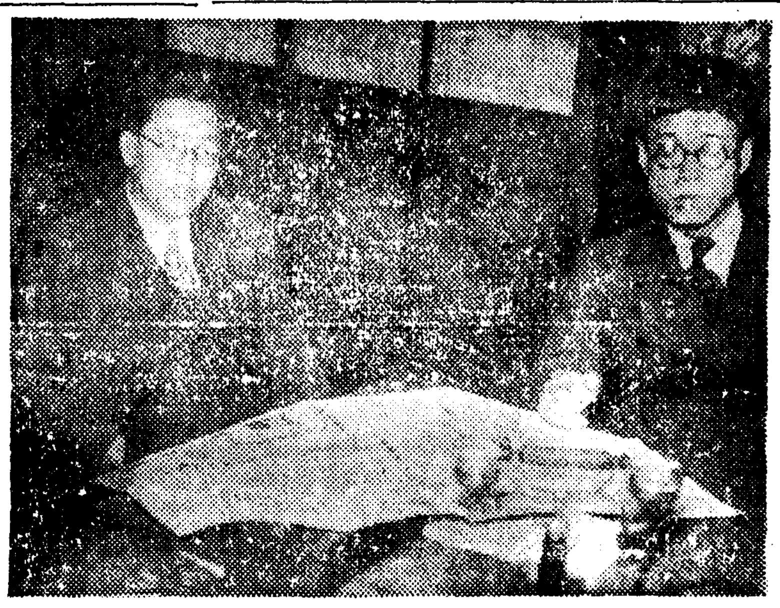
朴 이야기는 좀다르지만 心境小說을 第一만하지만 그러케되면 作品속에 作者도나오고 또作者의周圍사람도나오고할텐데 그럴때 作者로서는 그것을어느程度까지 러노흘수잇슬것일까 어떤때는 作者가『우두보래』는아니라해도읍닌데 그러라고 이것을作品에 드러난다면 그親友와親戚도생기겟고 폐롭지안켓서요

安 그게들어가야만 小說이된다는것도아니겟지요

朴 이것저것 作者의性格으로取捨한다는게아니라 거기두는制限이 잇지안켓서요?

安 그건 남들補한것이지요

朴 남보다도 내가——



對談하는 朴氏(右)와 安氏(左)

作者自身의 長點도 드러낼수도잇고 安 또는 作者가 謙遜하지안코 다른사람까지도 大膽하게 取扱해서 描寫업시 쓸수잇는가요?

安 그런問題는 부닥처보지안엇서요

朴 그러타면 作者가 自己自身의 醜態를 드러내는것은 어느程度까지되겟습니까 假令作者自身이 아니라도 親子가登場할때 어디까지 거리낌업시 쓸수잇슬런지 志賀直哉가 저렇게 偉大하기 서기지안흔 小說은 잇슬수업다고한말을 記憶하고잇는데 이런境遇에는 어떠켓서요 꿈에 親友의 夫人과 關係가잇다고한다면 이것은 作者가 全然 생각지도 안헛

安 내가 [illegible] 心境小說을 만히 썻는데 南天의 한때 小說가치 거창하게 作者自身의 苦痛이란것을 當하지안흔데 내作品의 短點이잇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타고 林和氏나 南天과가치 心境小說을 弱點을 追窮해가지고 그런小說의 獨特하世界까지 否認하는것은 실하고요 그獨特한 價値를 갓고십허요

★批評은偏見을버렷스면

朴 南天이『博文』에다가 殺人作家라는 얘기를 쓴것이잇는데 이것은 泰遠氏의 작品에 나의 洗禮에 對해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죽이가질러서 말하기면 作者가 그만큼 大膽하게 하지못하고는 그만 性格으로는 함에 녹지니까 作者가 얼굴을 찡그리가면서 殺人을 시켜요 그外에 姦通이라든지 言爭이라든지 愛慾이 어지는데도 따귀를 때리고 밤길도 찬다든지 그런것도 그 逆하는데 懷南은 어떠케 생각하시오 否認한데는 殘忍하다고?……

安 그야그러켓지요 殺人그대로가『레드카즐』의 徹底性을 가지고 그러치 아니고 그럴만대서 不徹底가아니겟지요 그런데 어째서 그러냐고 감히 하십니까?

朴 自然 그런생각하게되요! 그러구 評論家로서의 [illegible]에게 못고치는말인데 말하자면 作家로서 評論家에對한 不滿이라고할까 作家가 作品을쓰드시 評論家도 評論을쓸때 自己가 한마디하고서 푼데 該當한問題에對한作品을 求하는모양이지요 그래서 第一 그런作品이 입을境遇에는 作家처럼 作品안에서 이야기만할수업스니까 自己理論이 비슷한 作品을가저다가 色彩잇는것으로 理論을 展開시키는모양이애요 假令 내作品『愛經』에 對한것인데 이作品의 조코나쁘고간에 내가 責任을지는데 그때評者는 小說을쓸수업는特殊事情이 잇섯지만 그러라고 小說에도 그러한문을 말수도업고 그랫더니 月評에다가는『골목안』파탄된다느니 여기서作者는 轉向을하여 새로운 期待가 잇다고하엿다느니햇는데 그러한點은 評家가 알수잇서야지 그러치못하면 評家로서資格이 못된것이고 얘기로한다면 不親切한것이라고하겟지요 결국 作者로서는 被害야……

安 그러치만 어쩌는수업지요

朴 나타나는事實만 가지고보아도 重大한證明인데……

安 그런것까지 캔다는것은 作者의私生活일지모르지만 어째든 評家는 文學的事實만가지고 意識的이건 無意識的이건 評價하는것이 事實이지 어때요 ——(계속)——

"스트린드베르이"의꿈

●運命觀이라는것은 中世紀에는 騎士의 일이엇지만 요지음은 그러치도안어서 갑갑하여지는 가지고 비싼 食料配給을하는 努力은 買로 個人뿐아니라 國家的으로하는 데도잇다

( )

●지나간겨울에『노르웨이벨』의 賞金을 탄 加州大學의『글루-텐』은 運命의 歷史的變遷도함을 바꾸면 刪거아니라『모던』運命觀의 一種이다

( )

●그『노벨』賞의 本來의 財이나흔 世界的作家『스트린드베르』인가 젊어서는 쇠붓스러기로 金을 맨들려고 무수한 애를 썻다는 이야기는 업마 傳해지지안엇다 그것은 바로그의 [illegible]에서 "金術師"라고 부르는 때의 일이다. 그는 그試驗에 평상한 [illegible]을 돈이업서서 그만 그일은 斷念하고 그대신 人生의 金術師라 그結果는 大部分의 의 心理描寫에 나타낫고 따라서 異彩가 을 世界文壇에 올려놋햇다.

( )

●黃金으로 騎士의이라고 黃金의魅力은數千年을두해서人類를誘惑햇나보아서 古來로다 金을 뭇으로 黃金을 만들수잇다는 仙丹(西洋서는 賢者의 돌이라고부른다)을 자즈려고 무척애 애써왓다.

( )

●그러데 아메리칸 한「노벨」賞의 [illegible]者인「알프레드·노벨」氏의 生日이 바로十二月十日인데 어불효「스톡크호름」에서는 記念式이 열리어잇고 그날 平和·文學·物理化學 어醫學門의 受賞式이 擧行된다. 바로그「노-벨」氏가「다이나마이트」의 發明者요 同時에 世界平和의 熱烈한信奉者엿다.

焚書 (1)

金午星

옛날 秦始皇이 焚書坑儒를 모아 불태울때 빼앗긴 自己의 藏書가 불덩이가 되는것을 보든 선비들가운데는 痛哭을 햇거나 氣絶을 햇을사람이 잇섯슬것이다。그보다도 暴君을 咀呪하면서 거기에抗拒하지못하는 自己의 하찰것업는 목숨을 스스로 自決한 선비도 잇섯슬는지도 몰른다。

나는 이번에 藏書 六百册을 태워버렷다. 허나 내藏書를 빼아슨것은 人間 暴君이아니라 火神의 暴威엿든것이다。三十年來의 처음이라는 金剛山의 大山火——十二月三十日 正午에『가는골』이라는 神溪寺에서 約二十里許에 잇는 深山에서 失火되엇다는적의 失火에서 發火되엇다는적은불이 마츰 눈(雪)한둥이업고 마른풀이 落葉에 引火되어 가지고 猛烈히 불려오는 北風에、氣勢를올려 瞬息間에 外金剛의 全山에 퍼지게되엇다。午後六時頃에는 어느듯神溪寺나 溫井里의 人家를 四方으로 包圍하여 火海가운데서 避難의길까지막혀 아우성을치는가운데 火神은 普光庵、神溪寺 一部와 十餘戶의 民家를 事實어서 灰燼시켯스며 그중에 神溪寺의 境內에 한間의房을 빌려가지고잇슨 寒士인 나의 藏書全部를 빼아서간것이다。나는 마침 產褥病으로 苦痛하는 안해를 高城邑某病院에 入院시키고 看護하고잇슨때라

내藏書가 불덩어리가되는 光景을 보지도알지도못하고 그밤을 아무일업시 지냇다。翌日새벽에 溫井里로부터 간신히 避難해온 어린것들을 通해서 이消息을듯고 달려갓슬때는 火神은 태울것을 다— 태워버린다음이엿다。延燒行進을 계속하고 잇스며 나의藏書는 러만남은 개와장속에서 마즈막타는 가는煙氣를 뿜어내고잇슬따름이엿다. 나는 그만 精神이 앗득해지고 말엇다. 만일 내가 불타는 當時에 이곳에잇섯드라면 어찌하든지 藏書를救하려햇슬것이요 救하다할수업게될때에는 藏書를끄러안고 藏書와함께불에타죽엇을는지 모른다。그만큼나에게는 所重한、아니내生命과 바꿀수잇는 藏書엿든것이다。그러나 이미다ㅣ타버린뒤라 어찌할道理가 업다。발을굴어痛哭한들 무슨 所用이잇스라

新春漢詩一等

題 春祝

京城府城北町二五三之一 崔和順

稽首焚香祝歲神 滿心一醉自由世
今春祝異去年春 連脣同歎平等人
雨順風調登稻茶 又將鞍館如椽筆
天晴海晏息兵塵 啓發文明日日新

白 全鮮圖轉如[illegible]歡自由平等 [illegible] 結又祝報紹 [illegible] 有 [illegible]

귀의世界

앙드레모로아 獨逸式本名을改名

佛蘭西作家앙드레·모로아의 本名이『에미-루·헬초-크』라고는 그리알려지지안핫지만 그本名은 獨逸式이름이다 그『모-로아』氏는 獨佛開戰後 獨逸式인 本名을가진것을조치못하게생각하고 佛蘭西政府에 改名願을 提出하엿다。即『에밀-루·헬초-크』를 업새고『앙드레·모로아』를 正式이름으로 手續하고 이와同時에 그의 두子女도 正式으로『모로아』의 姓을 붓도록 改名願을 내노앗다한다。『모로아』氏는 佛獨開戰以來 佛蘭西의 情報部에서 活躍하다가 요지음은 西部戰線上에서 英國派遣軍의 通譯官으로 活躍하고잇다고한다

文化討議室

問 渡邊卓郎氏가 監修한 化學工業讀本의 定價와 그發行所를알려주시오 (仁川李石俊)

答 同化學工業讀本은 合十冊으로 第一、二冊은六十錢 第六、九、十冊은 一圓二十錢 其他는全部一圓이요 發行所는 東京市日本橋區通三丁目六 丸善株式會社 (振替東京五)입니다

新刊紹介

▲한글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花洞町一二九 朝鮮語學會 振替京城一〇〇四四番 定價十錢

▲朝鮮商工獎勵館報 十二月號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朝鮮總督府商工獎勵館內 朝鮮商品調査硏究會 定價十錢

李朝의黨爭의禍 (完)

黃義敦

이윽고肅宗이도라가고 英祖 少論의謀害網을겨우버서나 임금이되매 少論을『不共戴天』의讎敵으로 여기면서도 외朝庭에 그득한 그의勢力을 一朝에몰아내기 어려우므로 한쪽으로는 李光佐、柳鳳輝等의 緩和派를 끄러써서 그네를安心케하고 한쪽으로는 金一鏡、睦虎龍等의 過激派를 차례로 죽이어서 그의勢力을 차차로주리게하더니 四年戊申에 그의餘黨金寧海(一鏡의子)、睦時龍(虎龍의弟)等이 失勢不平한南人李麟佐、鄭希亮等으로 더부러 淸州와 嶺南에서 叛旗를 들엇스나 마침내官軍에게 敗沒되다

이로부터 英祖ㅣ 더욱少論을미워하여 거죽으로는黨論의 蕩平을 主張하면서도 機會가잇슬제마다 少論의過激者를 誅戮하고 老論을登用하더니 三十一年乙亥에少論尹志、李夏徵等의逆獄이 일어나매 趙載浩、朴文秀等少論八十餘人이 惶怯하여 英祖께請罪하고 모두前罪를 追悔하므로 그네의生命은 保存케되엿스나 이로부터 少論은아주劣敗가 되고 老論派가 專權케되엇다.

(八) 黨爭의餘波와結果

이로부터百餘年間은老論의專權時代로서 敗退한南人、小北、少論은 一隅에서 殘喘을保存하여왓을뿐이다。老論에게政權을빼아낀 그네의行動을 大別하면 다음과가치 三種으로 나누어볼수잇슬것이다。

(一)가장介潔하고高尙한志操와品格을가진者 李瀷、柳馨遠、丁若鏞等南人과가치 政界에進出키를 斷念하고 江湖와 山水間에 追遙放浪하여 自然을謳歌하는同時에 實生活에適宜한學問을 硏究하므로 一生의業을 삼은사람도잇섯고 (二)利害打算에 機敏하고、趨勢에依附하여 黨派와體面을 도라보지안코 오직自己의利益을 위하여 有力한 老論파門에 아페가서 阿諛苟容의 모양으로 昏夜哀乞하야 若干의微官末職을 어더하는사람도잇섯스며 (三)大勢의追移와 自己의能力을 自覺지못하고망녕되이 不平憤恨하야 老論의行爲를함부로 攻擊하다가 그네에게미움을바더 一生을 瘴海遠地에 귀양사리로 갓치거나 甚하면 生命을 빼앗기고 滅門의禍를 當하는사람도 相續하엿다.

그러고 老論이 오래專權하는동안 그中에서 代代的專權者를 勢道라指稱하엿섯다. 그래서 正祖初엔 權臣洪國榮이 四年間 勢道를잡엇고 正祖가 돌아가시고 十一歲의 어린임금 純祖께서 임금이되시매 그의王妃의 父親인 永安府院君 金祖淳이 政權을 잡기비롯하여 三代(純、憲、哲)六十年間에 金左根、金汶根、金炳冀等金氏一門이、이어 勢道를잡어 國政을左右하였고 趙萬永、趙寅永等外戚이 또한 사이사이에 勢道를잡앗섯다 그네의勢道를 잡고잇는동안 人心을收攬하는 한方便으로、四色別에이라하여 少論、南人、小北에게도 若干官職을주엇다。

그의수는 數는때를따라만키도하고 적기도하엿스나 大槪로는 黨의大小를따라서 老論、少論、南人、小北의順位로 仕官하는數도 五、三、三、一의 比例가만핫다 그러나 그의實權은恒常 老論에게잇고老論中에서도 勢道者에게잇섯다

高宗初에 그生父인 興宣大院君이 勢道를잡기 十年間에 老論을抑壓하고 南人、小論、小北을引進하려고、애썻스나、오래동안、뿌리가지저잇던 老論의勢力을 어찌지못하엿슬뿐아니라 도리여 老論의陰謀詭計的策動에、속아서、勢道까지、빼앗기게되엿섯다。

그러고그뒤에、老論이 오外戚인閔氏에게로、勢道가도라가자 閔升鎬、閔台鎬、閔泳翊、閔泳駿等一門이、이어二十年間ㅣ國政을左右하엿섯다

이러로三百年來 黨爭은 專力하여온結果로는 朝鮮人의精神을 더럽파엿슬뿐이엇다。이제黨爭으로부터 입게된 禍害를 全幅的으로 들려다 調査하고 說明키는어려우나 그中에서二三의例를 들어말하면 다음과 가틀것이다。

(一) 黨爭史上最初의犧牲인 己丑獄事이며 柳永慶、鄭汝立、永昌大君、綾昌君、金悌男、權韠等、光海時代의寃獄이며 癸亥革命의血潮와 庚申、壬戌二大獄、黨의慘禍이며 己巳、甲戌의禍局과辛壬士禍의慘劇等 때로演奏하야온 激戰의結果로는 甲黨의勝利가 곳乙黨의流血이되고 乙黨의成功이 곳丙黨의禍亂을이루엇다。그래서悽慘한血潮가三百年의歷史를물드리고마랏섯다。王莽의議論가『殺盡禍罪』을 激烈하여 世人의눈을속이고 大逆不道의罪惡을 敢行함과가치 堯舜孔孟을 謳歌하는 朝鮮의儒敎的政人들은 政敵을慘殺할세마다 四凶을 죽인 大舜、少正卯를 베인 孔子의道로自處하고 實行하기를 일삼엇다。

『假借衣冠僞販聖迹』라하더니 朝鮮의黨人은『假借衣冠僞販大舜孔子』하는偶像이 多數엿다。말하자면 大舜과孔子가튼 聖人으로도 그의行動이 도리어後世에 禍害를이닷다할만하다。

(二) 三百年來의黨人은 自身의地位、私黨의利害를 擁護하기에汲汲하고 敵黨의嫌寃과 父祖의仇讐를 報復하기에汲汲하여 國利와民福을 도라볼餘暇가 업서왓슴으로 그네의主張한 朋黨의國策과 進講한上疏의內容을 詳査하면 上部는 君王에게 阿諛하는媚辭요 下半部는 敵黨을排斥하는陰謀뿐이엇다。그러고 荒廢한產業과 暗黑한敎育 腐敗한衞生、懦弱한國防은 그대로放任하여두고 一黨의餘念과一派의 割策이 업서왓다。엇지痛歎할바아니엇스랴?

(三)다른나라歷史上에서類例를차저볼수업는 世襲的政黨의 싸움을 悠久한동안이어온結果로는 假面의虛僞僞飾과殘忍한陰謀詭計가 發達되엇을 同時에 猜忌、嫉妬、派爭、謀害의가진惡性이 跋扈하엿다。그래서 至今까지 그의餘毒이 우리社會에 남아잇게되엇다。

아프로 詳細한黨爭史를써서 보라고經營하는中이므로 爲先이만치 簡單하게써 끗을마친다。

蔚山

蔚山郡廳
蔚山郡農會
蔚山稅務署
蔚山朝鮮酒酒造組合
蔚山金曜會
凡西面協議員 李根祚
慶尙南道會議員 吳義相
蔚山兵營 吳斗相

賀正

西生面協議員 李根守
蔚山邑 鶴城旅館
明治生命蔚山出張所
蔚山邑 張成植
蔚山醫友會
蔚山邑 姜尙佑
蔚山邑 朴福萬
蔚山釀造合資會社
蔚山邑會議員 朴根榮
蔚山邑 趙鏞振
蔚山邑會議員 徐達植
鶴城製瓦工場 鄭炳煥
蔚山邑會議員 李圭萬
下廂面協議員 金源表
下廂面協議員 朴棋祥

蔚山邑會議員 金在文
蔚山邑會議員 崔辛出
凡西面長 徐鶴壽
凡西釀造合資會社
蔚山郡大峴面古沙里 合名會社 大峴酒造場
農所面協議員 金昺[illegible]
溫山漁業組合
兵營釀造合資會社
下廂面協議員 金興善
蔚山水利組合
蔚山產業組合
蔚山商事株式會社
蔚山公立學校長會
蔚山邑會議員 李德杰

凡西面協議員 趙鏞珍
長生浦 岡田忠商店
溫山面 李協洙
溫山面協議員 尹秉寬
方魚津 尹德鎬
方魚津邑會議員 金基錫
方魚津邑會議員 張泳極
方魚津邑會議員 李鍾山
方魚津 白斗先
方魚津邑日山里 曺成學校
大峴面古沙里 洪性默
方魚津邑尾浦 韓吉贊
下廂面長 金澤天
下廂面協議員 高基號
西生面協議員 申泰淙
西生面鎭下里 趙鏞璧
朝鮮運送 蔚山代行營業所
長生浦 金文龍
虎溪 金鍾大
方魚津酒造株式會社
喪中欠禮 金仁奭

統營

統營邑曙町 宋秉文
統營邑明井里 朴喜鑾
鎭海灣漁業株式會社 社長 坂倉浩

統營邑議員 河尙文 金英燦 張柱漢 卓同朝 徐灝斗 金仁洙 谷本寅吉
統營朝鮮酒製造業者組合
統營邑 山陽面 龍南面 光道面 遠梁面 東部面
慶尙南道漁業組合聯合會 統營出張所
欲知漁業組合 山陽漁業組合 龍光漁業組合 閑山漁業組合 蛇梁漁業組合
長承浦邑議員 陳正律 同 陳聖鳳 同 姜柄振
統營郡廳
鎭海灣定置漁業水產組合 電話三〇番
統營郡棉作改良聯合會
統營邑 日高讃三郎 全道敏
統營邑貞梁里 林昌圭 林駿圭
統營朝鮮酒製造組合
統營稅務署
統營邑貞梁里 精米業 方斗辰
統營漁網株式會社 社長 對川君造
一運面知世浦 慈鮮醫院

統營郡校長俱樂部
統營醫師會
統營龍華寺 主職 朴鎭湖
統營漁業協會 會長 久保熊之進
慶南統營邑新町 藝妓券番 電話三三二番
統營邑道泉里 朴性午
統營邑新町 方德村精米所
巨濟產業組合 理事 金東彬
欲知東港釀造場 金在國
統營邑貞梁里 三成精米所 電話二〇一番
統營齒科醫師會
南鮮合同電氣株式會社 統營出張所
東部面加背里 金瑤洙
統營吉野町 米穀薪炭 泰信商會 主 諸泰彥
統營邑市場通 海東醫院

尙州

尙曜州土會
尙州釀友會
尙州郡各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郡化北面 面事務所 職員一同
尙州邑內 濟正醫院 朴正紹
尙州邑內 三省醫院 金基鎬
洛東面上村里 趙翼衍

財産및投資對象으로서의土地 (六)

農地以外의土地

鑛山도 農村에있어서 土地의 一部分이며 林野도 그러하다. 그리하여 農地以外의土地로서는 現在, 朝鮮에서 主要한地位를 占領하고잇는 鑛山을 考察하는것이 順序이겟지마는 이에는 多少 特殊한分析이 要求됨으로 便宜上 割愛하고 여기에서는 다만最近 朝鮮의 工業化問題에 關聯하여 都會地及 그近郊 工業地帶 鐵道地 交通機關의新設에因한 新開地等의 土地에限하여 考察하기로한다.

土地는 農業과工業에있어서 所謂 立地로서 重要한意味를 가지고잇다. 移動할수잇는商品 或은土地에 固着되어잇는漁業等과는 달리 土地와 直接關係를가지지안는漁業以外의 農業과工業이 立脚하는土地의 一定位置를 가리키인데 一定産業部門이 一定地點에 立脚하는事實에있어서는 一定한法則이 支配된다. 그리하여 國民經濟諸部門은 一定한法則에서 그生産을 配置하고잇나니 이제 그法則이라할 生産에서販賣에 이르기까지의 諸過程을 淸算하는 諸要素의 結合條件을 意味한다. 市場, 動力, 原料, 勞動力, 運輸力, 工業用水等의 모든要素의結合狀態가 有利할때에 工業地帶가 決定되어 그리하여 工業地帶가 形成되는것이다. 附近이 人口가 密集하며 이에 附隨하여 交通機關이 發達되는것이다.

現在 文化國에있어서 地主의 土地는 한조각도 업스리라. 그리하여 如何한土地라도 이를 利用하려하면 地主에게 一定한 報酬를 주어야할것은 勿論이다. 그런데 土地가 企業上으로 利用될때에 地主에 對하여 支給할 報酬는 企業利潤中에서 平均利潤을 控除한 部分이 最大限度가 될것이다. 企業利潤에서 平均利潤을 犯하는 限度의 報酬를 支給하면서 그土地를 利用하고자하는 企業家는 存在하지 안는까닭이다. 그러고 土地利用에 對한 報酬는 平均利潤을 超過하는 利潤이 地代가 되는것이 原則이나 企業家의 競爭이 잇는때에는 土地利用의 報酬는 地代일것이다. 이 土地利用의 地代는 農業에있어서나 工業에있어서나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제 工業에있어서의 地代를 살피고자한다. 平均利潤以上의 所謂超過利潤인데 이超過利潤은 一定한工業立地에서만 發生하는것으로 工業地帶에있어서 發生하는 地代로서 이는 差額地代에 屬한다. 어떤工業立地에서 平均利潤以上의 超過利潤이 생기는것은 그地點의 自然的優越條件에서가 아니고 그國의 모든 社會的條件에서 생기는것이라 할지나 그러나 何必은 어떤地點이 利用되지안흘수업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地點의所有者는 自己所有土地의 利用을 犯하는 超過利潤을 要求할수잇다. 그리하여 企業家에 對하여 그全部를 要求할수잇다. 그리하여 企業家는 이러한地代를 支給하든가 或은 土地를 買收하지안흐면 안되나니 이 買收에잇서서의 土地價格은 前項에서 說明한바와 가치 地代를 一般利子率로 資本還元한額으로 決定된다. 企業家에잇서서는 一時에 買收하나 或은 永續的으로 地代를 支拂하나 꼭 同一한事實이다. 이리하여 新設工業地帶의 土地價格은 新設工業의 超過利潤을 豫想하고 騰貴하게되는것이다.

어떤工業이 어떤地點에 새로 進出할때에는 반드시 이地點에서 超過利潤이 나오는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새로운立地가 다만平均利潤을 保證할때에 不過할때에는 이地點에서는 地代가 發生하지안는다나 하면 그는 그러치는안타. 웨그러냐하면 어떠한 地片이라도 私有되어잇는까닭이라. 그리하여 工業에잇서서도 農業에잇서서와 마찬가지로 어떠한企業家에게 거 勿論하고 地代가 發生하는것이다.

正租公定價十日實施
出廻依然不圓滑
淸算안되는先高觀念

米穀의 配給調整을爲하여 昨今 慶北正租의 公定價는 이미制定되엇는데 公定價는 産地共販及消費地의 荷受組合間에 協定된價格보다 一錢이나와고 또實施期에 餘裕를두어 其間 産地都邑面等에서 出荷利得을 엇든關係上 各地에서는 出荷를꺼려하여 事實에잇서서는 出荷를 遲延하고 今十日부터 實施를보게되엇스나 當局의 期待에 背反되고잇다 이것은勿論 凶作에依한 需給不圓滑에 基因되는것이기는하나 新穀期以後 얼마되지안흔今日에잇서서 米가 업는것은 아닐것이니 結局 先高豫想을 賣惜하는까닭으로보인다. 그러므로 當局에서도 公定價는絶對로 再引上치안는다는것을 徹底히周知시키는것이 緊急할것이라고하고잇다

正租公定價格

今十日부터 實施된 正租의一斤當販賣價格은 如左하다

京城府	十二錢三厘	康津邑	十二錢三厘四毛
		榮山浦邑	十二錢三厘九毛
仁川府	十二錢一厘七毛	(以上④三等)	
水原邑	十二錢一厘五毛	大邱府	十二錢一厘六毛
淸州邑	十一錢九厘七毛	尙州邑	十一錢八厘八毛
忠州邑	十一錢八厘三毛	慶州邑	十二錢一厘四毛
鳥致院邑	十二錢六毛	釜山府	十二錢二厘九毛
天安邑	十二錢一厘一毛	馬山府	十二錢一厘七毛
鐵原邑	十二錢一厘六毛	密陽邑	十二錢一厘
洪州邑	十二錢一厘三毛	三千浦邑	十二錢一厘一毛
延安邑	十二錢一毛	(以上②三等)	
(以上兆仁銀坊主三等)			
論山邑	十一錢九厘五毛	信川邑	十二錢四厘一毛
長項邑	十二錢一厘四毛	沙里院邑	十二錢五厘六毛
群山府	十二錢一厘四毛	平壤府	十二錢六厘六毛
裡里邑	十一錢九厘二毛	鎭南浦府	十二錢六厘六毛
參禮面	十二錢一毛	新安州面	十二錢四厘四毛
井州邑	十一錢九厘九毛	新義州府	十二錢四厘五毛
(以上多銀坊主三等)		定州邑	十二錢四厘一毛
木浦府	十二錢五厘二毛	(以上②羽三等)	
麗水邑	十二錢五厘二毛	元山府	十二錢七厘四毛
順天邑	十二錢四厘二毛	咸興府	十二錢七厘四毛
松汀邑	十二錢三厘六毛	(元羽二三等)	
長城面	十二錢三厘四毛		

土地改良事業의 代行會社不設置

朝鮮增米計畫의 實施에依하여 土地改良事業은 今年度부터 復活되어 昭和水利組合을 爲始하여 未成立또는 新規組合이 續出하여 成立될터인데 右에伴하는 代行會社의 設立이 民間에서 매우强하게 提唱되고잇고 農林局에서도 愼重히 研究中이나 農林局으로서는 今般의 增米計畫이 短期의計畫인것 及技術者를 急히求할수업는事情等이잇으므로 新規로 代行會社를 設立하지안키로 方針을 決定하고 其代身左의 三案에對하여 研究中이다 卽

一、水利組合의 統制를 創設하여 工事의 合理化를圖謀할것

二、現在의 水利組合更生聯合會의 機能을 强化할것

三、民間旣存會社의利用을圖할것 等이라한다

移出米廿萬石 中旬까지完了

朝鮮米第一回內地移出量二十萬石은 總督府의 指令에依하여各地에서 配給을 모두끗마치엿든바 이지음 其準備를完了하엿스므로 目下西朝鮮各港으로부터 積出하고잇는데 配給은順調로 今明一月中旬까지에는 輸送을完了하리라 豫定이다

朝鮮農會總會

朝鮮農會에서는 來三十日午前十時부터府內太平通遞信事業會館에서 定時總會를開催하고 左記事項을 附議決定하리라한다

一、昭和十三年度歲入出決算報告件

一、昭和十五年度歲入出計劃 前豫算件

輸出生絲 積立金
用途를研究中

羅絲界의 安定保持를 目的으로 制定된 羅絲業維持安定積立金制度는 內地에 順應하여 朝鮮에서도 一月一日부터 實施되엇는데 今般右制度에依하여 積立되는것은 輸出品에限하나 內地品에對해서도 同樣으로實施할 與否를 目下農林局에서 愼重研究中이다 輸出生絲積立의事務는 絲協會에서 取扱하기로되엇는데 同協會에서는 目下 積立金規程 研究中으로 十二日의 役員會에 原案을 附議可決하면 總督府에 認可申請을할모양인바 積立金의用途는 大體로 如左하다

一、蠶絲業統制强化 [illegible]

滿洲大豆(羅津在庫) 八萬石買付
需給關係好轉을豫想

朝鮮米穀配給組合에서는 年末부터 年初에걸처서 羅津에잇는 滿洲大豆八萬石을 買付하엿스므로 近日中이各地로 配給할豫定인데 이로因하여 朝鮮內에잇서서의 大豆의 需給事情은 顯著히 好轉할것으로 豫想된다

大阪配給組合初配給

【大阪電話同盟】臨時大阪配給組合會에서는 八日買受한 四萬四千二百二十二俵를 初配給하엿다 右는從來에는 大口, 小口를 不問하고 均衡的으로配定하고잇섯는데 小賣業者를 十級으로區分하여 이新制度下에 配給하기로된것이다 또同配給組合에서는 大分縣米三萬石을 買入할모양이다

硫安助成金
朝鮮은不必要
湯村農林局長談

今肥料年度의前期(一月—七月)의 硫安, 過燐酸石灰, 石灰窒素等에對하여는 內地에서는 二千萬圓의助成金을 製造者에對하여 交附하기로決定(其中硫安은六十六萬圓에對하여 一千百萬圓)하엿스므로 朝鮮도 自然朝鮮關係方面에서는 肥料公定價格을 引上하든가或은 肥料公定價를 取하여야 할것으로 總督府의態度를 非常히 注目하고잇든바 이問題에對하여 湯村農林局長은말하다

朝鮮은內地와 根本問題에잇서서事情이 다르므로 內地에追從할必要는 업을것이나 此點에對하여는 아직 考慮하지안코잇다 問題는도리어 國策이라는 大局的見地에서본 境遇에 內地에서 重要肥料製造에 助成金을 交附하는것과가튼 近視眼的 一時的의措置를 取하고잇는것가치 보인다 朝鮮의 重要肥料에對한助成金交附나公定價引上等의問題는 先言한바와 가치 아직새각치안코 따그狀態이는 곳 必要도 업다고생각한다

銀行劵繼續收縮

十日에繼越된日銀劵은 四億一千五百二十五萬[illegible]千七百四十八萬五千九百七十一圓으로 또收縮되어 前日에比하여 百九十九萬八千九百十五圓의 減少이며 限外發行도 前日에比하여 實로七百七十五萬五千二百六十八千圓이엇다 銀劵도 繼續收縮되어 前日에比하여 六千七百二萬三千圓이나 減少되어 三十億七千三百九十七萬八千圓이엇다

日淸製粉聯合會脫退

【東京電話同盟】有力製粉會社로써組織된 日本製粉聯合會는 結成以來 小麥粉價格의協定 小麥輸出組合設立等을行하여 各社間에唯一의懇談機關으로서 貢獻하고잇던바 同聯合會加盟社中 最有力社인 日淸製粉은 突然今後도 各社와協調할意思는 變함이업스나 現在의여러가지 事情으로 오히려聯合會外에 잇는것이 製粉界를爲해서도 조타고 말하는 旨의通告를發送하고 脫退하게되엇다 同社의脫退原因은 詳細치안흐나 가장有力社인 同社의脫退로因하여 聯合會의解體가念慮되어잇다

上旬初入超
二千六百十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今年一月上旬의 本邦對外貿易槪算은 如左하다 (單位千圓)

輸出	二一、七七八
輸入	四七、八七八
入超	二六、一〇〇

對墨交涉
石油屑鐵問題로

【東京】日米通商條約의 失效를目前에두고 米國政府의 對日態度는 不可解한點이잇서 失效後도 通商上에 重大支障을주지안는다는 兩國當事者의諒解도 米國의眞意가 那邊에잇는가 全然放任 樂觀할수업는이때 墨西哥貿易斡旋所로부터 貿易局大阪貿易斡旋所에 到着한 情報에依하면 同斡旋所에서 日米無條約時代가 實現할時에는 墨西哥가 對米貿易의 中繼國이될수잇을與否에 對하여 愼重히 調査中이다 그結果에 依하면 現在中繼國으로하기에는 대단한 困難이 伴하나 現在까지의 墨國對米貿易關係와 日墨間의協力에 依한 對墨如何에 따라서는 將來 極히 有望할뿐만아니라 中南米市場으로의 進出도 墨西哥를 根據地로하고 一六箇國을 할수잇는 可能性이잇고 墨國貿易銀行調査部長 할베르토·화베—러 氏는 이에 크게 贊同協力할方針이라는言를 言明하고잇는것은 特히 注目되는바이다

經濟消息

○朝鮮綿絲布商聯合會理事會=朝鮮綿絲布商聯合會에서는 九日正午부터 府內南大門通 共益社에서 理事會를開催하고

一、價格等統制에關한件

一、新入會申込者處理件

一、本會所定價格에關한件

을附議, 同午後二時半散會

○京城人絹同業組合總會=朝鮮人絹同業組合에서는 來十二日, 共益社에서 定時總會를열고 左記作附議

一、昭和十三年度決算承認件

一、昭和十四年度事業報告件

京城經濟懇話會 十三日發會式

京城府內各官廳, 銀行會社, 新聞通信社 各界의 有志들로 組織된 京城經濟懇話會는 來十三日午後六時半부터 京城商工會議所에서 發會式을擧行하고 規約制定及役員選任을 하기로되엇다 또同會에서는 前京城商議會頭賀田直治氏及大阪京城木村雄次郎氏를 顧問에 推戴하고 各種의 經濟問題를 硏究하기로되엇다

十錢

▼昨年中 出超는 八億五百萬圓의 巨額.

▼그內容의 詳細를 보기前에는 알수업스나, 對圓域輸出激增이 大出超의 基因일것은 分明.

▼戰時下에잇서서는 巨額의入超는 避免할수업을것이라고 잇스므로 第三國貿易에잇서서는 大入超이엇슬것도 確實.

▼圓域輸出이 巨利潤을 내기때문에 物資는 滔滔流出되어 今日의 大出超를 齎來.

▼이것이 國內의 物資不足에 拍車를加하여 『인풀레』의 一因이 되어잇음을 考慮할일.

▼大出超는 그만큼 輸出業者의 利益이되기는 하엿스나 貿易全體, 經濟全體의 立場에서는 要檢討.

世界的生産過少時代
世界大戰經濟的打診
世界的『인풀레』時代

世界的戰爭時代가 繼續될때 따라 物資는世界的으로不足해진다.

資源이잇더라도 그것을 物資로하고 生産力으로 化할만한人力이 不足해지는때문이다.

機械를 人力으로 바꾸어노코 人力의不足을 緩和할지라도 그機械를만들어내는데에는 亦是만흔人力이 必要하다.

그런데 人力은 大部分이 戰爭에게빼앗기게된다.

×

이에反하여 世界의 物資需要는 超스피—드로 五倍十倍, 二十倍로必要하게되며 生産力增加도 五倍, 十倍, 二十倍로必要하게되나 人力은五倍, 十倍로 超스피—드的으로 늘어갈수업다.

그러므로 世界的으로 生産力이不足해저서 物資가缺乏케될것은 容易히推測할수잇는 일이다.

×

우리는 曾前으로는 人力不足이라거나 人口過少가든것을 생각지안는터이나 消費力이 急激히增加되어 生産力이 超스피—드로 五倍 十倍로 되지안흐면안될 時期에 當하면 비로소 人口過少 人力不足을 痛感케된다.

今次의 世界戰國時代가 一大消耗戰인限 이러한現象을 招來치안흘수업고 그結果로서 世界에資源이 相當히잇지만 人力不足으로 그것을 物資로만들어 낼수업게되어 그때문에 世界的生産過少時代를 招來케된다.

×

우리는 지나간百年以上이나 世界的生産過剩을 經驗하여 世界的生産過剩을 經驗하엿지만 世界的生産過少를 經驗치안는것을 그러므로 世界的인풀레라는것을 입에올려본 일이업섯다.

그러나 世界戰國時代가 五六年繼續되면 物資不足으로 世界的의 一大生産過少를 招來하고 그때문에 世界的인풀레를 볼지도 모르겟다. 世界의 人은 아직 一般的으로 世界的인풀레의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安心하고 잇는것이다.

그러면 都大體 世界的인풀레라는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世界各國이 物資不足으로 困難을바다 從來와는反對로 輸出을制限하고 輸入을奬勵하는 現象이라고도할수잇다.

그때문에 世界는 一大때 同時에 世界物價를 一層떠어트리엇다.

反對의狀態를 招來케된다. 世界物資는 不足되어갈뿐이다. 各國이 輸出을적게하고 輸入을 만케하고자한다. 그러므로 外國에 輸出할境遇에는 價格을引上하여 비싸게 輸出하고자할것이다. 一國이 이러한態度를 取하면 他國도 그와가튼態度를 取케된다. 그때문에 世界物價는 더욱騰貴될뿐이다. 그때문에 世界的인풀레로된다.

지금까지는 그反對로 各國이 競爭的으로 外國에 物資를 輸出하려하고 輸入을 制限해왓다. 그리하여 正貨를 流入시키고 國內에 그物資를 蓄積하므로써 滿足하엿던것이다. 그것은 世界的으로 物資가 過剩하엿던때문이엇다.

이것은 다시世界的物資不足을부르고 世界的高物價時代와 世界的인플레와 世界的인플레時代에 物資不足에拍車를加케될것이다. 그때문에 世界物價는 더욱 騰貴될것이다.

그때문에 世界物價는 더욱더욱 騰貴하여 世界物價下落의 傾向과 生産過剩을 크게 限局하여 이러한可能性이잇다.

그結果 各國內의 通貨價値는 下落되어 戰爭을 繼續할수업게될때가온다.

그때문에世界는 一大때 結局 그곳에 到着할것이아닌가?

株式 小往來로 浮動

前場軟弱 今朝는東新五低인 百四十九圓丁, 鐘新도五低인 百二十一圓五, 鐘紡百八十二圓五에 低落寄付後 東新은八圓九까지 段低이다가 決前에 東新百四十九圓四 鐘新百二十一圓八에 大引

後場少堅 後場은 東新앞 百四十九圓二에 寄付後少堅모양이엇다.

政局安定待

阿部首相은 重大進言에對하여 目下愼重考慮中이라고 兩院에 左右間에 現內閣은 危機에 直面하여 그退陣을 旣定事實로 보는側이 만타. 勿論始初부터 決定的이라고 할수업는 그런데 同內閣이 退陣하는것은 조흔일이라고도 하겟스나 그後繼內閣이 性格의 如何如何야 할것일른지 하는點에 對하여 市場은 飜悶하여 低迷하고 東新은다시 百四十八圓臺를 示하엿는데 政局不安은 그러하고 汪政權樹立이 臨迫되엇고 歐洲情勢가 去益緊迫하여 가는등의 四圍情勢가 거는 『인풀레』의 浸潤을보고는 濃厚하여 도리어 收益라는氣分이 突込買는할 政局의 安定만 보면다시買進될 形勢이엇다

現物一息
現物은淸算主力의不振

勢로大體로 不變모양이 엇스나 部分的으로 若干의整理物이보이어 郵船, 商船, 鐘紡等은 小涵되어고 其他는 變物薄商狀이엇다

今日現株市勢(正午)

◇朝鮮內株式

鮮銀新 吾〇 殖銀 [illegible]

市場寸感

◆政局도 今明日中에는 一大進展을볼 形勢이어서 그推移를觀望코 不敢買持續◆그러나 所謂 强力內閣이 出現한다면 『인풀레』라는 基調가 依然하므로 進展을보고서도 上放할까? ◆但問題는 强力內閣의 性格如何◆大戰第二年을 마지하여 伊國政府의 同盟說◆中立이 언제까지나 中立에 그칠수는 업는것이지

延米 依然閑散 凡調

前場不變 今朝도亦是實物薄商狀이어서 玄米一區物 二圓限『자라바』에잇서서 最高價인 四十二圓十五錢第二區大引에잇서서 最高價인 四十二圓二十八錢의 二本을 付하고正租는 一區二月限『자라바』에잇서서 十二圓五十九錢一本을付하엿다.

後場不動 後場은玄米, 正租가 모두一月 二月限『자라바』에잇서서 各一本式을付하엿다

京城延取前場賣買

▲玄米 第一區 자라바 ▲賣方 第一〇〇 ▲買方 第一〇〇 第二區 大引 ▲賣方 山本 五〇 ▲買方 田中 五〇 ▲賣方 都五〇〇 ▲買方 陰田 五〇〇 賣買高 一千 ▲正租 第一區 자라바 ▲賣方 [illegible] ▲買方 〇 一〇〇 ▲賣方 〇 一〇〇 賣買高 二〇〇石

海外經濟 九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九日

日本銀行券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今日財界 十日

◆米穀(京城,仁川)

正租	[illegible]	[illegible]
玄米	[illegible]	[illegible]
大麥	一六〇斤	[illegible]
裸麥	二三〇斤	[illegible]
粟	二四〇斤	[illegible]
大豆	咸山三等	[illegible]

京城物價 十日

▲白米(一石, 單位圓) 七分搗米 [illegible]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一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六分三
		以上朝鮮銀行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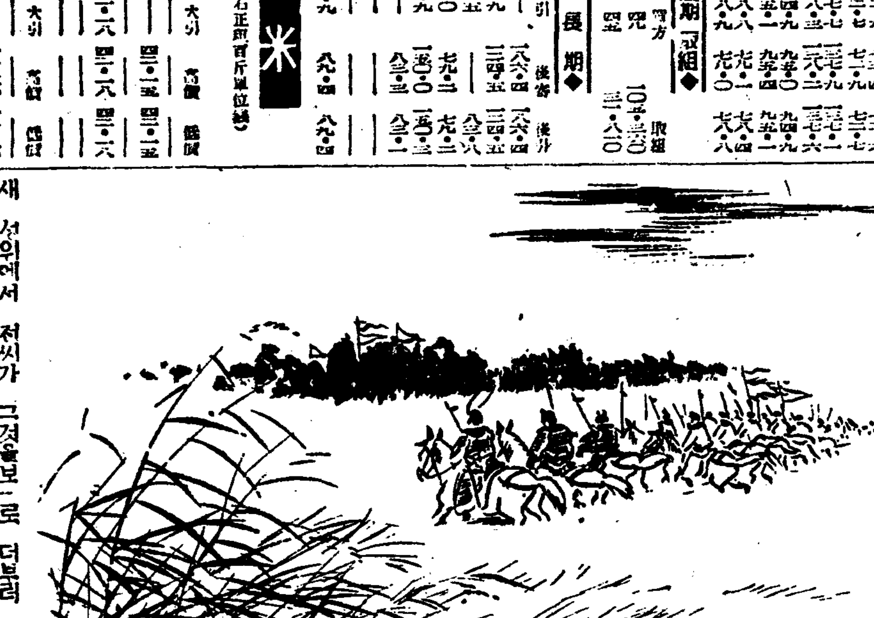
株式 賣買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鄭運得證券取引店 京城府黃金町

三原取引店 京城黃金町

三國志 【64】
韓龍雲 譯 熊超 畫

曹操의復讎戰(十四)



조조가 보다가 『여포는 한사람으로 이길수가 업다』 하고 전위로하여금 싸홈을 도웁게하니 두장수가 함께 칠새 또 좌편의 하후돈 하후연 우편의 이전 악진이 일제히 내다라 여섯장수가 힘을 가지하여 여포를 치매 여포가 당치못하고 말을 돌려 성으로 달아날새 고여포의 가족을 보호하여 성에나갓다. 조조가 박양을얻고 전씨의옛날죄를 용서하엿다 유엽이 조조에게 말하되 『여포는 사나운 범이라 오늘 곤하게 되엇스니 조금도 용서할수가 업스리라』 조조가 그말을듯고 유엽등으로 박양을 지키게하고 자기는 군사를이끌고 정도에 이르럿다. 그때에 여포는 장막과 장초 새 성위에서 전씨가 그것을보고 급히 사다리를 떼어지라 여포가 문을 열라고 크게 소리치니 전씨가 말하되 『내가이미 조조에게 항복하엿노라』 하거늘 여포가 크게 꾸짖고 군사를이끌고 정도(定陶)로 달아나니 진궁이 급히 동문을열고 로 더부러 성안에잇고 고순 장요 장패 후성은 양식을 어드러 바다사가에나가서 돌아오지 아니하엿다. 조조의 군사가 정도에 이르자 며칠을 싸우지 아니하고 군사를이끌고 사십리를 물러나 와 진을치니 정히 보리가 익을때라 조조가 군사로 하여금 보리를 베어 양식을 하더니 정탐군이 여포에게 보한데 여포가 군사를이끌고 쫓아오다가 조조의진에가까이와서 좌편에 수풀이 무성함을 보고 복병이 잇는가 의심하여 물러가니 조조가 그것을 알고서 모든 장수에게 말하되 『여포가 수풀가운데 복병이 잇는가 의심하여 물러갓스니 수풀가운데 기치를 세워서 의심나게하고 서편쪽의 진둑에는 물이업스니 거기에 정병을 매복하엿다가 내일에 여포가와서 수풀을 불지르거든 둑안에 복병이 그뒤를 끈흐면 여포를 가히 사로잡으리라』 하고 북치는사람 오십인만 진중에 남겨두어 북을 울리게하고 조에서 사로잡아온 사람들을 시켜서 고함소리만 내게하고 정병은 다 둑안에 매복케 하엿다. 여포가 돌아가서 진궁에게 말하되 『조조는 간사한계교가 만흔니 가히 대적하지못하리라』 진궁이 말하되 『내가 불로치면 가히 복병을 파하리라』 여포가 진궁과 고순을 머물러 성을 지키게하고 스스로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니 멀리 수풀가운데 기치가 뵈이는지라 군사를 몰아 사면으로 불을 지르니 마침내 한사람도 뵈수가 업는지라 진으로 들어가고자하더니 크게 울리는지라 정히 의심하여 어찌할줄 모르더니 홀연 히 진뒤으로 한떼 군사가 나오거늘 여포가 군사를 노하야 뒤더니 포성이 일어나며 뚝안에 의 복병이 나오고 하후돈 하후연 이전 악진등 여섯장수가 일제히 나오니 여포가 대적지 못할줄을 헤아리 고 황망히 달아날새 따르던장수 성렴이 악진의 화살을 마저 죽는지라 여포의 군사가 세면 말면 낭패하더니 도망한군 사가 돌아와 진궁에게 보한데 진궁이 말하되 『빈성은 지키기가 어려우니 급히 가는니만 갓지못하다』 하고 고순으로 더부러 여포의집 식구를 이끌고 정도로 달아낫다. 조조가 승전한 군사를 몰아 성을 치쳐 들어가니 형세가 대륙 쪼개는 것 가튼지라 장막은 스스로 북에다고 장초는 원술에게로 달아나니 산동 지경은 다 조조의손에 들어가게 되지라 조조가 성을 수리하고 백성을 평안케 하엿다. 여포가 정히 달아나다가 만든장수를 만나고 또 진궁을만 난지라 여포가 말하되 『우리 군사가 비록적으나 오히려 조조를 파할만 하다』 하고 남은 군마를 해빈(海濱)에 모아 조조로더부러 싸홈을 결단하고자 한데 진궁이 말하되 『이제 조조의 형세가 커서 가히더불러 다툴수가 업스니 먼저 몸둘곳을 취한뒤에 다시 싸우는것이 늦지아니하리라』 『그러면 다시 원소에게로 가는것이 어떠하뇨』 『먼저 사람을 기주에 보내어 소식을 탐지한뒤에 가는것이 조흐리라』 여포가 그말을 쫓찻다 원소가 기주에 잇서서 조조와 여포가 서로다투는 소식을 들어 알더니 모사 심배(審配) 가말하되 『여포는 이리와 가튼지라 만일 연주를 어드면 반드시 기주를 엿볼지니 조조를도아 여포를 처서 뒷근심을 끈는것이 올흐리라』 원소가 그말을조차 안량을 보내어 군사오만을 거느리고 조조를 도웁게한지라 여포의 염탐이 그소식을 탐지하고 여포에게 보한데 여포가 크게놀래어 진궁으로더부러 상의하니 진궁이 말하되 『유현덕이 새로 서주를 어더 그곳에 가서 의지하는것이 올흐리라』 여포가 그말을 조차서 서주로 향하엿다